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抄錄 寫本 고찰*

김현주**, 백연주***

<目次>

I. 서론	III.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抄錄 寫本
II. 敦煌曲 중 定格聯章	1.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1. 聯章의 정의 및 특징	2. 定格聯章 抄錄 寫本 종류
2. 定格聯章과 中國俗文學	3. 定格聯章 抄錄 寫本 특징
	IV. 결론

I. 서론

현대에 대중가요가 있다면, 중국 선진시대에는 詩經이, 중국 양한 시대에는 樂府가, 그리고 唐代에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曲子詞가 있었다. 곡자사라는 이름은 《花間集》序 중 ‘詩客曲子詞’로 기록된 것이 처음 보였고, 曲, 曲詞, 曲子 등의 여러 이름으로 칭하게 되었다. 이후 敦煌에서 발견된 寫本에 수록된 곡자사를 ‘敦煌曲子詞’ 또는 ‘敦煌曲’, ‘敦煌歌辭’라 부르게 되었다. 命名의 문제에 대해 任二北 선생은 《敦煌曲初探》¹⁾에서 ‘敦煌曲’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王重民 선생이 《敦

*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외국어대 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재학생

1) 任二北, 《敦煌曲初探》, 上海文藝聯合出版社, 1954.

煌曲子詞集》²⁾(이하 王 《集》)에 ‘悉曇頌’, ‘山花樂’ 등을 비롯한 佛曲 가사들을 배제한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가사들을 모두 포괄하는 ‘敦煌曲’으로 명명하였다. 본고는 임이복 선생의 이론을 따라 이하 ‘돈황곡’이라고 한다.

중국 통속문학은 송 戲文, 원 雜劇, 청 戲曲 등으로 발전되어 중국 민간 연예양식의 중요한 장을 이루었고, 근대 이후의 중국 문학사에서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것은 김학주 선생의(1998) 《中國文學史》³⁾ 수정판 서문에서 수정을 가한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문학의 시대 구분점을 북송 말(1126) 남송 초로 잡고 고대가 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정통문학이 계속 발전해 왔던 반면, 근대는 정통문학이 정체되고 소설과 희곡 창작을 중심으로 문학사가 전개되었다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당대 민간의 가사들은 시경이나 악부와 달리 채집되지 않은 민가의 원형이자 詞의 원형이 되며, 다양한 신분과 감정을 다양한 음악에 맞춘 민중의 비망곡과 같은 가사다. 가사를 통해 당대 민간의 보편적 정서와 그들 생활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다.⁴⁾ 이러한 민간의 가사였던 돈황곡과 變文 연구자료는 20세기 초 돈황 천불동 석실에서 발견되는 寫本들로 시작된다. 주로 1907년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이 가져간 후 런던박물관에 소장 중인 것, 1908년 펠리오(Paul Eugène Pelliot; 1878~1945)가 가져간 후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것과 북경도서관 및 일본과 레닌그라드 등에 흩어져있다. 왕중민 선생과 임이복 선생을 비롯한 돈황곡 초기 연구자들은 펠리오와 스타인 사본을 위주로 북경도서관이나 일본 및 개인 소장 사본들을 보태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돈황곡에 관해 임이복 선생은 1954년 《敦煌曲初探》(이하 《初探》), 1955년 《敦煌曲校錄》(이하 《校錄》), 1987년 《敦煌歌辭總編》(이하 《總編》) 출판 등의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 《初探》은 당시까지 수집된 돈황곡들에 대한 이론서이며, 《校錄》은 王 《集》(총 161수)에 定格聯章 등을 추가하여 총 545수(普通雜

2) 王重民, 《敦煌曲子詞集》, 商務印書館, 1950.

3) 김학주, 《中國文學史》, 서문, 신아사, 2005.

4) 김현주, 《敦煌曲子詞選集》, 서문, 현학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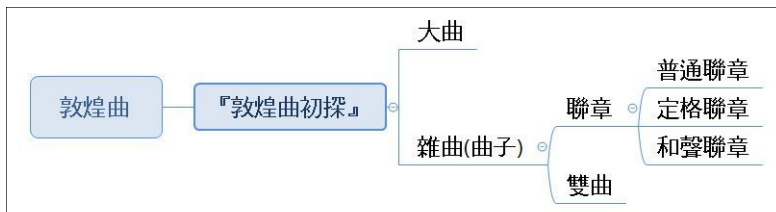
曲 227수, 定格聯章 298수, 大曲 20수 등)에 대한 작품 校錄集이다. 《總編》은 《校錄》보다 32년 뒤에 출간된 《校錄》의 증보판으로 총 1300여 수의 돈황곡이 수록되어있다.

본 고에서는 《初探》에 정리된 임이복 선생의 이론을 바탕으로 《校錄》에 수록된 돈황곡 중 定格聯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初探》과 《校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돈황곡에 대한 최초의 체제 구분 시도로, 이후 돈황곡 연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며, 定格聯章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王《集》에서 배제된 불교적 성격이 강한 정격연장의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함이다. 무엇보다 초록된 사본 외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돈황곡이 당시 어떠한 장면 속에서 가창 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초록된 사본 자체를 가치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정격연장이 향후 강창문학으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연구하는데 기반을 닦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敦煌曲 중 定格聯章

1. 聯章의 정의 및 특징

임이복 선생은 《初探》에서 돈황곡을 크게 雜曲과 그에 상대되는 개념인 大曲으로, 잡곡을 聯章과 雙曲으로, 연장을 다시 普通聯章, 定格聯章, 和聲聯章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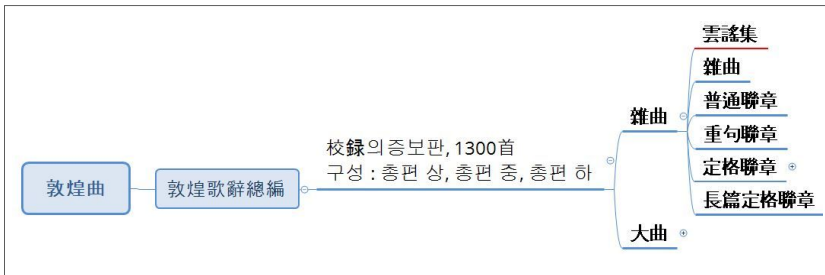


〈그림 1〉 《敦煌曲初探》에 의한 돈황곡 분류

대곡이 다른 리듬을 쓰는 몇 개의 ‘遍曲’들로 이어져 구성되었다면, 연장은 같은 곡류를 쓰는 몇 개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한套의 연장에서 句法은 동일하다. 이러한 체제는 당대에 이미 있었고, 그 영향이 후대까지 미쳐 북송의 鼓子詞나 元曲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⁵⁾ 비록 대곡이 음악에서 기인하고, 연장은 가사로 결정된다 해도 연장의 가사들은 음악과 분리되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임이복 선생의 돈황곡 체제 구분은 《校錄》과 《總編》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그림 2〉《敦煌曲校錄》에 의한 돈황곡 분류



〈그림 3〉《敦煌歌辭總編》에 의한 돈황곡 분류

위 그림에서 보듯이 정격연장은 《校錄》에서 증보되고 《總編》에서 長篇定格聯章으로 세분될 뿐 체제 자체가 개편되지 않는다. 정격연장 최초의 분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차츰 이론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初探》내 연장의 종류에는 보통연장, 화성연장, 정격연장이 있다. 보

5) 任二北, 《敦煌曲初探》, 上海文藝聯合出版社, 1954, 52-53쪽 참고.

통연장은 가사의 의미가 한 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많은 편폭들로 연결된 것이며, 화성연장은 〈散花樂〉, 〈好住娘〉, 〈悉曇頌〉 등과 같이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화성도 있는 것이다. 정격연장은 〈五更轉〉, 〈十二時〉, 〈百歲篇〉, 〈十恩德〉 등과 같이 곡의 수(辭數) 또는 단락수(段數)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⁶⁾ 정격연장은 보통연장에 비해 형식에 있어 일정한 章數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임의로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임이복 선생은 《初探》에서 돈황곡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했는데, 특히 곡조 기준으로 나눈 양상 중에서 〈五更轉〉, 〈十二時〉는 ‘정격연장에 속하는 調’이면서 또한 ‘다른 체제와 연합하여 變文으로 유입되거나, 변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에도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⁷⁾ 이들은 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후에 많은 강창문학들의 기원이 된다. 〈五更轉〉, 〈十二時〉 등이 초록된 사본 내에 이것들과 함께 기록된 다른 것들을 살펴본다면 당시 이러한 곡들이 상연되던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定格聯章과 中國俗文學

唐五代 시기 돈황 민간에서 전해지던 통속적 문학의 여러 장르는 이후 중국 통속문학 발전의 중요한 기원이며 맹아가 된다. 돈황곡자사는 곡조에 맞춰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후 宋詞의 淵源과 매우 관계 깊다. 또한 후대 변문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문은 이후 鼓子詞나 鼓詞, 諸宮調, 寶卷, 彈詞, 話本小說 등에 있어 발전의 맹아가 된다.⁸⁾ 고자사는 송대의 일종의 서사적 강창문으로, 당시 사대부들이 연회에서 사용한 간단한 형식의 오락적 기예였고, 제구조는 변문의 체제를 계승한 강창형식의 체제이다. 나머지 보권, 탄사, 고사는 명대 이후 강창의 주류가 되는데, 특히 보

6) 같은 책, 53쪽, 316쪽 참고.

7) 같은 책, 10쪽.

8) 林聰明, 《敦煌俗文化研究》, 私立東吳大學, 1984, 7-8쪽, 289-302쪽 요약.

권은 변문의 직계로 변문의 구조와 같고 강창 내용 또한 불교적 이야기와 인과응보가 위주이다. 불교의 보권은 초기에는 講經文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다. 주목할 것은 보권의 구조(散文, 韻文, 詞調) 중 詞調가 돈황곡의 정격연장인 〈十二時〉와 〈五更轉〉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조에는 보권의 歌唱 파트가 〈樂王救苦忠孝寶卷〉 같이 각 작품의 앞에 놓인 것과 〈土地寶卷〉 같이 각 작품의 끝에 놓인 것이 있다. 당대 이미 승려들이 노래하고 있었으며, 돈황곡 중 〈禪門十二時〉, 〈太子五更轉〉, 〈太子十二時〉, 〈太子入山修道讚〉, 〈辭娘讚〉, 〈南宗讚〉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강창작품인 〈斷齋書〉도 〈十二時〉를 사용하고 있다.⁹⁾ 즉 〈五更轉〉과 〈十二時〉는 寶卷의 구조 중 詞調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명청대 통속 문학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五更轉〉은 〈從軍五更轉〉 齊言體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거나 명청대 아래의 〈五更調〉, 〈嘆五更〉, 〈哭五更〉, 〈盼五更〉 등으로 속곡의 근간이 되었다. 〈十二時〉 또한 후세 《全宋詞》에서 총 31수, 명말 청초의 《鼓棹初集》에도 수록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유행되고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五更轉〉, 〈十二時〉를 비롯한 정격연장은 이후 명청대 까지 이어져 강창 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Ⅲ.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抄錄 寫本

1.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曲

《初探》에서는 돈황곡을 〈표 1〉과 같이 체제 및 내용과 작용, 기예 방법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¹¹⁾ []안의 숫자¹²⁾는 《校錄》에 수록된

9) 같은 책, 299-230쪽.

10) 鄭阿財, 〈唐代佛教文學與俗曲-以燉煌寫本‘五更轉’, ‘十二時’爲中心〉, 《普門學報》 第20期, 2004, 8頁, 28-29쪽 요약.

11) 任二北, 《敦煌曲初探》, 323쪽.

12) 같은 책, 弁言의 1쪽.

〈표 1〉 任二北 선생의 《敦煌曲初探》내 둔황곡 분류

敦 煌 曲										부문				
大 曲		雜 曲 (또는 曲子)								류				
		聯 章				雙 曲				항				
和聲 疊句 모두 없음	疊句 있음	和聲 있음	和聲聯章	定格聯章			普通聯章			長調 中調 小令	체제			
6 遍	4 遍	3 遍	同類 重頭	兩調 兼帶	輔曲 長篇	多遍 重頭	單遍 重頭	同調重頭		換頭 兩遍	單雙 모두 있음	雙疊	單遍	구성
			전부 佛讚 에 속함	獻頌 酬應	普勸 修行 法會 道場 으로 들어 올 때	(위와 같은) 道場 歌 으로 들어 올 때	體 括 형식, 歌 場 으로 들어 올 때, 社 會 教 育 작 용	故 事 연 출, 歌 舞 戲 는 變 文 이 되 다	問 答 형 식, 陸 參 軍 스 여 劇 場 들 어 올 때	일반적 오락감상		작 용		
歌, 舞, 樂			歌 樂 間 有 講 白	歌 樂	聯章講唱	歌 樂	變文講唱 者 가 있 음	歌 樂, 講	歌 舞, 樂, 演	歌 樂, 演	歌, 舞, 樂		기예	
예 蘇 莫 遮	예 關 百 草, 何 滿 子	예 阿 曹 婆	예 悉 曇 頌	예 五 更 轉 兼 十 二 時	예 十 二 時 [501] 이하	예 五 更 轉 [418] 등	예 十 二 時 [467] 이하	예 皇 帝 感	예 鳳 歸 雲 [003]	예 南 歌 子 [121]	예 望 江 南, 南 歌 子 등 調		대 표 곡 조	

545수를 임이북 선생이 임의로 매겨둔 번호이다. 펠리오와 스타인의 번호가 사본 기준이라면, 임이북 선생의 []번호는 매 수 기준이다. <표 1> 하단의 돈황곡들은 각 체제를 대표하는 곡들로 제시된 것이며 이외에도 같은 곡조에 다른 여러 개의 가사가 있을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표 1>의 技藝 부분에서 故事 연출을 위한 講白, 講唱, 講, 演은 연장 부분에서만 보이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연예양식에 노래와 춤 뿐만 아니라 강창형식의 연예양식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II장 2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보권의 사조는 <十二時>와 <五更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승려들은 불경 전파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연예양식을 행하려 했을 것이다.

<표 1>에 근거하여 임이북 선생이 정격연장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놓은 곡조의 사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敦煌曲初探》 내 대표 定格聯章 寫本 번호

	곡조의 대표곡	펠리오의 사본	스타인의 사본
定格 聯章	十二時 [467] 이하	P.2564, 2633 ¹³⁾	
	五更轉 [418] 등	P.3065 ¹⁴⁾	
	十二時 [501] 이하	P.2054, 2714, 3087, 3286 ¹⁵⁾	
	* 五更轉兼十二時	-	-

<표 2>는 대표 정격연장이 초록된 사본의 번호를 기록한 표이며, 《校錄》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五更轉兼十二時》는 정격연장으로 구분하였으나 《校錄》에 수록되어있지는 않다. 이에 관해 《初探》에서는 ‘向達의 <唐代俗講考> 내에는 사본 P.3554 뒷면에 唐대 沙門의 悟眞¹⁶⁾이 지은 것

13) 任二北, 《敦煌曲校錄》, 131쪽.

14) 같은 책, 119쪽.

15) 같은 책, 140쪽.

16) 悟眞(약 811~895년) 晚唐五代시기 돈황의 고승(출처: <https://baike.baidu.com>)

으로 “上河西道節度, 頌, 德政及祥瑞, 五更轉兼十二時17首”라고 적혀있으나, 아쉽게도 원래 사본에는 序만 있고 곡이 없다. 序에 관한 연구가 중국으로 전해졌는지 또한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¹⁷⁾ 따라서 1955년 《校錄》이 출간될 때까지만 해도 〈五更轉兼十二時〉 곡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30여 년 뒤 출간한 《總編》에서 〈五更轉兼十二時〉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이듯 당시까지 정격연장으로 전해진 〈十二時〉와 〈五更轉〉이 초록된 사본은 모두 폴 펠리오의 것에서만 나타나며 총 7개가 있다.

2. 定格聯章 抄錄 寫本 종류

1절의 〈표 2〉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五更轉兼十二時〉는 정격연장으로 구분되었으나 곡이 수록되어있지 않고, 이후 발견된 사본들을 증보하여 30년 뒤 출간된 《總編》에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정격연장이라는 체제를 처음으로 정리해낸 《初探》의 이론과 《校錄》의 곡들을 기준으로 해당 사본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고에 실은 사진 자료 중 펠리오 사본은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의 필름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¹⁸⁾ 펠리오 사본의 표기는 P.0000의 형태이며, 스타인의 번호는 S.0000이다. 본 고가 근거한 판본은 모두 임이복 선생이 《校錄》에 수록한 곡들이다.

2020년 03월 9일).

17) 任二北, 《敦煌曲初探》, 54쪽.

18) <http://www.bnf.fr/> (2019/11/01~12/01)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약칭 IDP)는 돈황과 동부 실크로드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온 모든 필사본, 그림, 직물 등의 정보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국제 협업 기구이다. 중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및 한국 등 돈황과 관계되는 각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돈황의 모든 필름 자료들을 구축해 둔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를 링크해두었고, 이 필름 자료들은 가장 섬세한 마이크로필름으로 돈황학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자료이다.

(1) 十二時[467]이하

임이북 선생이 《校錄》에서 제시한 정격연장의 대표곡 〈十二時〉[467] 이하는 사본 번호 P.2564, 2633이며 스타인의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먼저 《校錄》의 판본에 근거한 곡조와 함께 任二北 선생의 정리를 살펴보겠다.

1) 〈十二時〉[467]이하 곡

〈十二時〉[467]이하 곡은 아래와 같으며, 판본은 《校錄》의 것을 따랐다.

平旦寅。少年勤學莫辭貧。君不見朱未得貴。猶自行歌背負薪。 [467]
 日出卯。人生在世須死老。男兒不學讀詩書。卻似園中肥地草。 [468]
 食時辰。偷光鑿壁事殷勤。丈夫學問隨身寶。白玉黃金未是珍。 [469]
 隅中巳。專心發憤尋詩史。每憶賢人羊角哀。求學山中併糧死。 [470]
 正南午。讀書不得辭辛苦。如今聖主召賢才。去耳中華長用武。 [471]
 日昃未。暫時貧賤何羞恥。昔日相如未遇時。悽惶賣卜於塵市。 [472]
 晡時申。懸頭刺股是蘇秦。貧病卽令妻嫂行。衣錦還鄉爭拜秦。 [473]
 日入酉。金罇多瀉蒲桃酒。勸君莫棄失途人。結交承己須朋友。 [474]
 黃昏戌。琴書獨坐茅庵室。天子不將印信迎。誓隱山林終不出。 [475]
 人定亥。君子雖貧禮尚在。松柏縱然經歲寒。一片貞心常不改。 [476]
 夜半子。莫言屈滯長如此。鴻鳥只思羽翼齊。點翅飛騰千萬里。 [477]
 雞鳴丑。莫惜黃金結朋友。蓬蒿豈得久榮華。飄飄萬裏隨風走。 [478]

任二北 선생은 이 곡에 대해 매 시가 한 수로 ‘3,7,7,7’의 4句 3韻으로 지어졌으며, 원래 〈斷齣新婦變文〉 내에 곡으로 삽입되어 있었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고 했다. ‘自從塞北起煙塵，禮樂詩書總不存。(중략) 願得再逢堯舜日，聖朝偃武卻修文。勤學不辭貧與賤，發憤長歌十二時辰。(변새 북쪽에 흠먼지가 일어난 후로, 예악과 시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게 되었구나. (중략) 다시 한번 堯舜 같은 왕을 만나, 어진 임금이 난리를 평정하고 교화에 힘쓰길 원하노라. 부지런히 배우는 것은 가난함과 천함을 가리지 않으니 發憤하여 십이시를 노래하세.)’ 이에 임이북 선생은 ‘發憤’

이라는 두 글자를 제목으로 삼았다. 또한, 이 시와 곡의 내용은 일치하나, 變文인 ‘新婦齟齬’와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배합되었는지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⁹⁾ 구식 ‘3,7,7,7’의 형식으로, ‘平旦寅’부터 ‘鷄鳴丑’까지 매 시를 한 수로 하여 총 12수로 번호는 ‘平旦寅’으로 시작하는 첫수 [467]을 시작으로 ‘鷄鳴丑’로 시작하는 마지막 수[478]까지이다. 또한, 《敦煌學大辭典》에서는 이 조의 내용이 ‘곡사에는 옛사람들이 힘써 책을 읽고, 安貧樂道 할 줄 알아 결국 명성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학문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였다.²⁰⁾ 사본 P.2564, 2633상에서 〈十二時〉[467]이하 곡의 앞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2) 초록된 사본의 양상

사본 1) P.2564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29.9~30.4×285.9cm

사본 내용 구성 : 앞면은 총 180행, 뒷면 총 179행으로, 차례대로 〈晏子賦一首〉, 〈齟齬新婦文一本〉, 〈十二時〉의 序로 보이는 詩, 〈發憤十二時〉, 〈太公家教〉가 수록, 뒷면은 차례대로 〈佛頂尊勝陀羅尼經〉, 〈百行章疏〉, 그 외 사람 머리 모양의 두 개의 크로키가 보임. 永安寺에서 행해진 두 개의 계약서와 盧라 불리는 박사의 국채가 있음.²¹⁾

② 사본 분석

앞면의 〈晏子賦〉는 敦煌俗賦²²⁾ 16편 중의 하나로, 강창 연출의 쓰임

19) 任二北, 《敦煌曲校錄》, 132-133쪽.

20) 季羨林, 《敦煌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8, 538쪽.

21) BNF(<https://gallica.bnf.fr> 2020/03/08)

22) 敦煌遺書에서 賦體에 해당하는 작품 중 이미 《文選》과 《唐宋詩文集》에 알려진 문인들의 부를 제외하고,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敦煌寫本에만 나타나는 16편의 俗賦를 가리킨다. 劉瑕(天寶時人)의 〈駕幸溫泉賦〉, 劉長卿의 〈酒賦〉, 白行簡의 〈天地陰陽交歡大樂賦〉, 張俠의 〈貳師泉賦〉, 何錫의 〈漁夫歌滄浪賦〉, 盧鴻의 〈龍門賦〉, 趙洽의 〈醜婦賦〉, 無名氏의 〈月賦〉, 〈秦將賦〉, 〈子

외에도 학생들의 읽을거리로 사용되었으며 ‘晏子고사’를 빌어 학생들을 교육하였고, 〈太公家教〉는 당대 서민들의 계몽에 통용되었던 최고의 교재였으며, 내용은 주로 효도, 권학, 입신하여 도덕을 행하는 등의 격언이 핵심이었고, 〈百行章〉은 관에서 발행하는 계몽교재로 충효와 효행을 그 취지로 삼았다고 한다.²³⁾ 즉 〈晏子賦〉, 〈太公家教〉, 〈百行章〉의 공통점은 모두 서민들에게 충효 사상을 전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듣는 이들에게 윤리적 내용이 담긴 교재의 사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불경인 〈佛頂尊勝陀羅尼經〉도 기록되어 있다. 〈佛頂尊勝陀羅尼經〉은 ‘당송시기에 널리 유행되었던 불경의 한 종류로, 당대에 다섯 종류의 의역본이 있었다. 돈황의 藏經洞에서 출토된 당오대에서 송초까지의 불교 문헌 중에서 〈佛頂尊勝陀羅尼經〉 儀軌의 사본 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그중 대다수가 佛陀波利²⁴⁾의 번역본으로, 12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²⁵⁾ 불경이 왜 앞면이 아닌 뒷면에 수록된 것에 관한 이유는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 특징으로, 앞면의 서체는 한 사람이 쓴 듯하여 서체가 일정하나 뒷면의 서체는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자 위에 다시 크고 두꺼운 한자가 쓰여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사람 머리 모양의 크로키와 날짜가 보인다. ‘왜 앞면의 서체가 일정하고 뒷면의 서체는 일정하지 않은가? 왜 낙서 같은 것들이 산재하여 있는가?’ 등은 당시 이러한 곡들이 적힌 사본들은 곡이나 불경을 적어 둔 교재의 용도였을 뿐이며, 보관과 관리를 소중히 했다고는 추측되지 않는다. 이 사본에 수록된 것들의 형식과 체제를 막론하고 모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성격으로 당시 유행한 곡과 같은 주제의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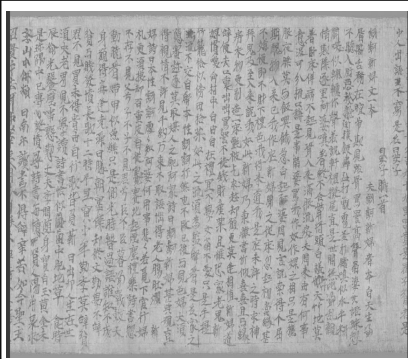
靈賦), 〈晏子賦〉, 〈韓朋賦〉, 〈燕子賦〉(갑), 〈燕子賦〉(을), 〈鬪鬪新婦文〉, 〈孔子項託相問書〉, 王敷의 〈茶酒論〉 모두 16篇의 俗賦가 있으며, 63개의 돈황사본이 존재한다.

23) 譚茹, 《敦煌俗賦寫本同卷內容研究》, 西華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45-46쪽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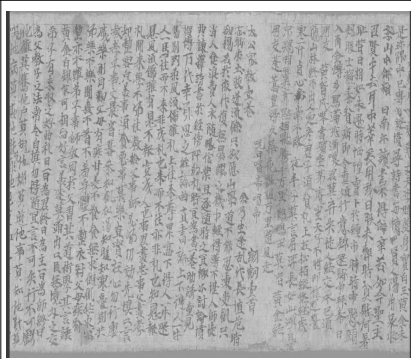
24) 唐代 譯經家, 당시 복인도 승려.

25) 陳凱源, 〈敦煌佛頂尊勝陀羅尼經變研究綜述〉, 《隴東學院學報》, 第30卷, 第4期, 2019,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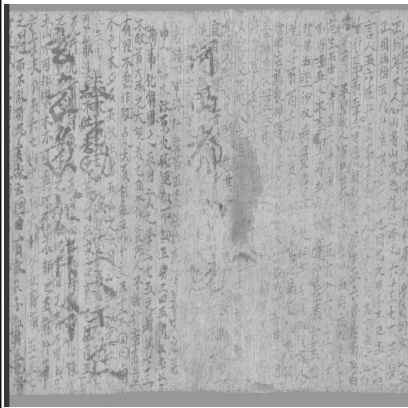
양식으로 표현된 문학 형태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낙서와 글자들이 산재한 모습은 서경생 밑에 있던 學仕郎 또는 강창을 들던 이들이 곡을 적어가며 연습 삼아 글자를 써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P.2564 앞면 일부(1)



〈사진 2〉 P.2564 앞면 일부(2)



〈사진 3〉 P.2564 뒷면 일부(1)



〈사진 4〉 P.2564 뒷면 일부(2)

사본 2) P.2633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29.4~30.3×164.2cm

사본 내용 구성 : 앞면은 총 105행, 뒷면은 약 30여 행, 앞면은 차례대로 〈鬪鬪新婦文一本〉, 〈正月孟春猶寒〉, 劉長卿의 〈酒賦〉, 〈崔氏夫人要女文〉, 〈楊蒲山詠孝經壹拾捌章〉, 앞면 끝 행에 ‘辛巳年正月五日汜員昌韓賓上’이 기재, 뒷면은 뚜렷한 곡이나 불경이 보이지 않음. ‘壬午年正月九日淨土寺南院學仕郎書’ 한 행이 있음.

② 사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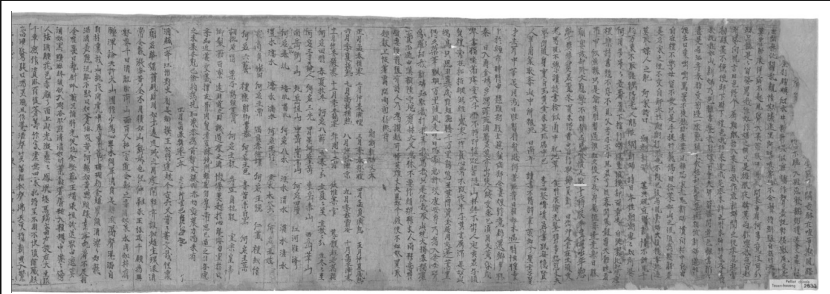
〈鬪鬪新婦文一本〉의 구성은 〈鬪鬪新婦文〉 및 〈發憤長歌十二時〉와 〈贅婿咒詞〉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뒤 敦煌俗賦 중의 하나인 劉長卿의 〈酒賦〉가 보이는데, 앞에서 상술한 사본 P.2564 역시 敦煌俗賦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돈황 속부와 〈十二時〉, 그리고 불경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敦煌俗賦를 둠으로써 더욱 노래하고 외우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어지는 〈正月孟春猶寒〉는 學童들이 사계절의 특징 및 변화를 잘 파악하여 기본적 자연상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崔氏夫人要女文〉은 여식이 출가하기 전에 모친이 읊었던 곡이었고, 〈詠孝經十八章〉은 혼례 때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읊었던 곡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鬪鬪新婦文〉은 신방을 차릴 때 신부를 놀리는 해학적 곡이었고, 〈酒賦〉 역시 혼례에서 술기운이 오를 때에 난쟁이 광대들이 익살스럽게 연출한 것이라 한다.²⁶⁾ 따라서 이 사본은 듣는 이에 게 혼인 잔치의 즐거움과 효경에 관계되는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뒷면 중간 부분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있는데 ‘壬午年正月九日淨土寺南院學仕郎書’는 淨土寺에서 學仕郎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學仕郎²⁷⁾은 만당시대에 나타난 抄寫를 주로 연습하는 이들로 書經生의 신분과는 구별되었으며, 보통 서경생 밑에 학사랑이 있었다. 서경생은 승려, 보통 신도, 전문직업인의 세 부류로 나뉘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학사랑은 그렇지 않았다. 이 사본 또한 절에서 강창을 할 때 학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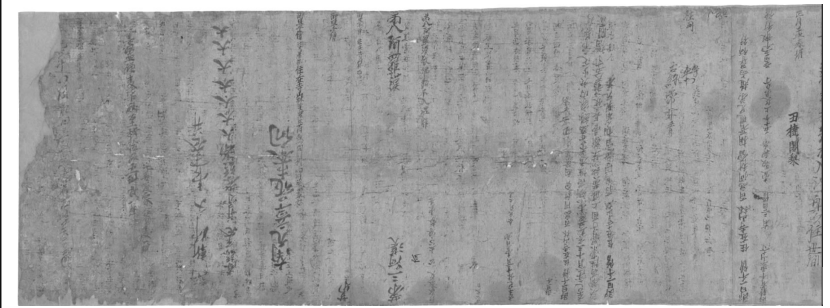
26) 譚茹, 앞의 논문, 43쪽, 요약.

27) 毛秋瑾, 〈敦煌吐魯番寫本中的寫經生與學仕郎〉, 《中國書法》, 208期, 2010, 56쪽 요약.

작성하였으며, 서체는 앞면의 것은 가지런하고 일정하여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나, 뒷면의 것은 서체뿐만 아니라 글자의 방향, 크기 모두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쓰인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학사郎들이 뒷면에 글자연습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 P.2633 앞면 일부



〈사진 6〉 P.2633 뒷면 일부

(2) 〈十二時〉[501] 이하

임이북 선생이 《校錄》에서 제시한 정격연장의 대표곡 〈十二時〉[501] 이하가 초록된 사본 번호는 P.2054, 2714, 3087, 3286이며 스타인의 것은 없다. 임이북 선생은 北京圖書館 鈔本에 의거하여 곡을 수록하였고, 아래와 같다.

1) <十二時>[501]ㅇ하 곡

普勸四衆。依教修行

雞鳴醜。曙色纔能分戶牖。富者高眠醉夢中。貧人已向塵埃走。[501]
 或城隍。或村藪。屹屹波波各營構。下牀開眼是欺謾。舉意用心皆過咎。[502]
 或刀尺。或秤鬥。增減那容誇眼手。只知勞役有為身。不曾戒約無厭口。[503]
 喫腥羶。飲醲酒。業障癡心難化誘。也知寺裏講筵開。卻趁尋春玩花柳。[504]
 命親鄰。屈朋友。撫掌高歌飲醲酎。為言恩愛永團圓。將謂榮華不衰朽。[505]
 妻子情。終不久。只是生存詐親厚。未容三日病纏綿。隈地僧嫌百般有。[506]
 囑親情。託姑舅。房臥資財暗中袖。更若夫妻氣不和。乞求得病誰相救。[507]
 兄弟亡。男女幼。財物是他為主首。每逢齋七尚推忙。更肯追修添福祐。[508]
 大丈夫。自支料。不用教人再三道。七十歲人猶自稀。何須更作千年調。[509]

平旦寅。天漸曉。鐘鼓滿城驚宿鳥。萬戶千門悉喧喧。九陌六街人浩浩。[510]
 或公私。或營討。不揀高低皆擾擾。壹生多是聚眉愁。百年少見開顏笑。[511]
 只知生。不知老。憂活憂家常苦惱。不信頭中白髮生。憑君自把青銅照。[512]
 火宅忙。何日了。配樹臨崖看即倒。只憂閒事不憂身。蹉跎不覺無常到。[513]
 葬荒郊。安宅兆。古柏寒松蔭荒草。津梁險路壹無憑。合眼沈淪三惡道。[514]
 莫相連。要思忖。也須自覺些些穩。如今壹向為生涯。前程將甚為支準。[515]
 要慈悲。莫怪吝。小小達情但含忍。聽法聞經勉力為。持齋念佛回精進。[516]
 今日言。是衷懇。萬計頭頭相接引。就中孤露要安存。切是臨危莫相損。[517]
 自知非。須識分。步步無常漸相近。自家身事自家修。別人誰肯相哀憐。[518]
 抱忠貞。行孝順。無利之談休話論。但將嫗事讓他人。早晚儂儂勝百鈍。[519]
 見師僧。要參問。莫謾身心須戒慎。言喻之人若到來。為君雪出輪回本。[520]

(중략)

夜半子。時刻循環有終始。始終終始始還終。有世界來只如此。[619]
 死又生。生又死。出沒憧憧何日已。或前或後即差殊。壹例無常歸大地。[620]
 夜即闌。天似水。鬥轉河回人盡睡。有時卻坐草堂中。悲見人間無限事。[621]
 悲囚徒。牢獄裏。夜靜領來力拷捶。杖鞭繩縛苦難任。皮肉痠疼連骨髓。[622]
 悲病人。久尫悴。四體沈沈難起止。床頭壹盞寂寥燈。枕畔兩行酸楚淚。[623]
 悲孕婦。日將至。停燭焚香告天地。性命唯憂頃刻間。渾家大小專看待。[624]

悲孤孀。沒依倚。發鬢茸茸雪相似。霜天寒夜自嗟籲。骨冷衣單多怨懟。[625]
悲行人。拋幼果。恨別愁明啼不寐。少妻燈下坐支頤。老母堂前愁嚙指。[626]
或富豪。或貧匱。各自前生緣果異。或藏草舍避驚憂。或臥紅樓整沈醉。[627]
或佳期。或失意。聚散悲歌事難紀。思量壹夜百千家。幾戶憂愁幾家喜。[628]
晝屬人。夜屬鬼。睡是人間之小死。身即冥冥枕上眠。魂魄悠悠何處去。[629]
夜復曉。曉復夜。晝夕遞遷何日罷。鏡中霜發逐時添。頰上桃花隨日謝。[630]
足軒車。多宅舍。蘭室屏幃純繡畫。壹朝祿盡死王來。生事落然難顧藉。[631]
善要修。罪須怕。不是虛言相誑諛。閻王未肯受分疏。煞鬼豈能容詭詐。[632]
火宅忙。須割舍。自古無常誰免者。暫寄浮生白日中。終歸永臥黃泉下。[633]
敬疑講。日將西。計想門徒總大歸。念佛壹時歸舍去。明日依時莫教遲。[634]

《校錄》에서는 이 조(套)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조(套)는 길이가 134수에 달하며 13段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은 12시에 맞춰 12段이 되었으며 모두 128수가 있고 끝의 6수는 전문을 총결하는 것이다. 원래 이 134수로 제한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본들과 이어 본다면 더 보탬 수 있을 것이다. 네 개의 사본 중에서 P.2054와 P.3087이 비슷하며, P.2714와 P.3286이 완전히 같다.’²⁸⁾고 하였다. 임이복 선생은 〈十二時〉[501]앞에 제목을 ‘普勸四衆。依教修行’로 두었는데 이것은 P.2054의 앞면에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라는 제목이 이미 수록되었고 또한 뒷면에 ‘智嚴大師十二時一卷’이라는 글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2) 초록된 사본의 양상

사본 1) P.2054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29.3~29.5×434.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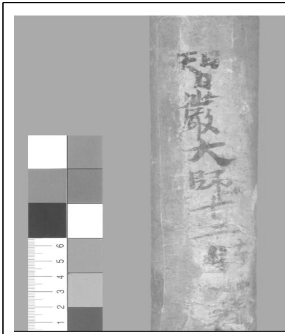
사본 내용 구성 : 앞면 총 184행, 매 행 약 20자, 우측에서 좌측 진행, ‘智嚴十二時普勸四衆依教修行’, 뒷면 총 7행, 疏請 한 통

28) 任二北, 《敦煌曲校錄》, 140-1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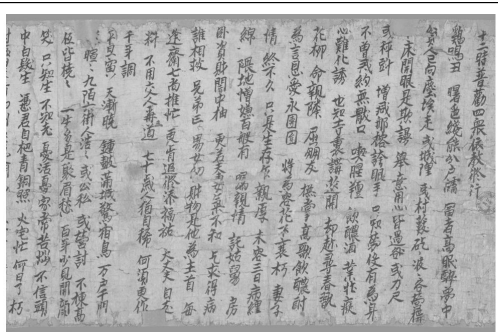
② 사본 분석

P.2054는 나무 막대를 중심으로 말려 있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사본이며 4미터가 넘는다. 이것은 <十二時普勸四衆依教修行>이 134수에 걸친 곡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十二時>[501]이하의 가사들만 실려있고 다른 글들은 보이지 않는다. 겉면에 ‘智嚴大師十二時一卷’이라고 적혀있다. 앞면 끝부분에 ‘同光貳年甲申歲蕤賓之月……’로 시작하는 행으로 보아 同光 2년인 924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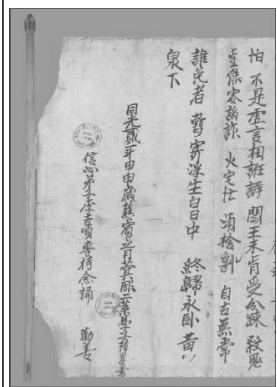
P.2054에는 [538], [539], [585], [586], [634]들이 누락되었고, 임이북 선생은 이 수들을 P.2714를 참고로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629] 뒷부분 세 구와 [630] 앞부분 두 구가 빠진 것 역시 P.2714을 참고로 보완하였다. 또한, 임이북 선생은 《校錄》에서 ‘鳳凰鏡’로 시작되는 <十二時>[580]의 두 번째, 세 번째 구를 고증하면서, P.2054의 ‘蓋枕蓋粧函鏡陷金細花’를 따르지 않고, P.2714의 ‘鸚鵡蓋枕盆妝函七寶鉞’을 취하였는데, 이는 구식이 ‘3,3,7,7,7’이므로 첫 구 ‘鳳凰鏡’ 이후 ‘鸚鵡蓋枕盆妝函七寶鉞’이 이어지는 것이 해석상 더 적합하다고 본 듯하다. 또한, 사본에서는 매 단 첫수의 첫 글자 우측 상단에 빨간색 꺾쇠 ‘ㄱ’ 표시가 곳곳에 보인다. ‘ㄱ’ 표시가 있는 부분은 각 단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열 세 단이나 되는 장편의 노래를 할 때, 한 단이 끝난 부분에 잠시 休止를 두기 위한 표지로 추정된다. 《校錄》에서는 <十二時>[501]이하를 수록할 때 한 단씩 수록하고 그 뒤에 임이북 선생의 설명을 가했는데 새로 한 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빨간색 꺾쇠 ‘ㄱ’(이)가 단지 휴지를 위한 표지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연예양식의 다른 요소(예를 들면 기예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7〉 P.2054 일부



〈사진 8〉 P.2054 앞면 일부(1)



〈사진 9〉 P.2054 앞면 일부(2)



〈사진 10〉 ‘疏請’이 수록된 P.2054 뒷면 일부

사본 2) P.2714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30~30.7×248.8cm

사본 내용 구성 : 앞면에 총 157행, 총 134수, 우측에서 좌측 방향 진행, ‘智嚴十二時普勸四衆依教修行’ 수록, 뒷면 없음.

② 사본 분석

P.2714는 뒷면 없이 앞면에만 〈十二時〉가 수록되어 있다. P.2714 역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이며 首尾를 모두 갖고 있다. 임이복 선생은 이 사본을

〈十二時〉[501]이하 사본 乙이라 하였는데, 〈十二時〉의 구식인 ‘3,3,7,7,7’에 전주어 볼 때 누락된 수가 많고, 기록의 형태가 구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붙이거나 띄어 쓴 문장들, 그리고 당시의 기록 중 ‘’처럼 글자를 썼다가 임의로 지운 흔적 등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앞선 사본 P.2054는 사본 甲으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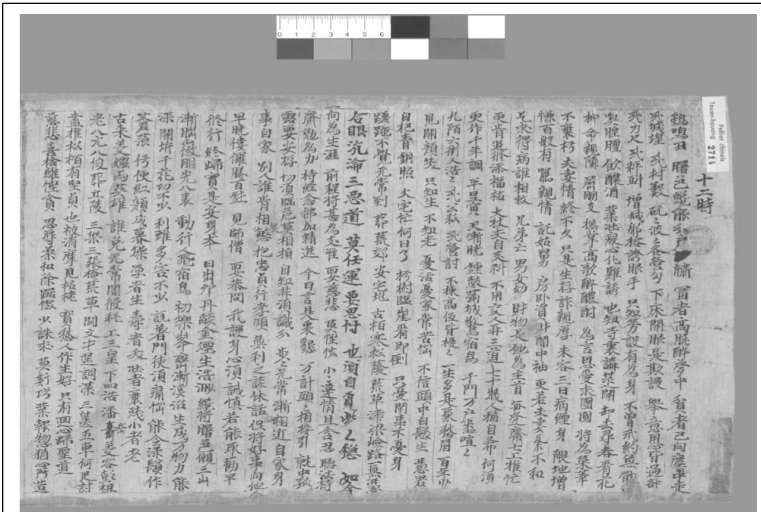
한편 모든 사본에서 ‘’ 표시는 앞글자 또는 구와 같음을 나타낸다. P.2714에서 이 표시는 매 단의 첫수의 첫 구 뒤에 자주 출현하는데, 〈十二時〉에서는 첫수가 ‘3,7,7,7’인 것이 7개, ‘3,3,7,7,7’인 것은 5개이다. 《校錄》의 판본과 사본 甲(P.2054)에 초록된 첫수의 구식은 서로 일치한다. 반면 사본 乙(P.2714)에서는 매 단의 첫수 구식이 ‘3,7,7,7’인 몇 개의 수에서 첫 구 다음에 ‘’(이)가 보인다. 이것은 〈十二時〉[501]이하의 첫 구절 구식이 ‘3,7,7,7’인 수들이, 원래 구식이 ‘3,7,7,7’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래 ‘3,3,7,7,7’이었는데 기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첫 세 글자 다음에 ‘’(을)를 두어 두 번째 세 글자를 생략하고 기록하였다가, 이후에 착오로 이 표시를 누락하고 ‘3,7,7,7’로 노래한 것인지 추후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全文이 끝난 후에 ‘別也 謹案大藏華嚴經六十五卷 說, ‘僧伽耶舍是大羅漢, 有大智慧, 聰明多聞。遊行之次, 至大海邊, 見壹大宅, 其宅且見層樓, 入於霄漢, 累閣橫空, 朱門次第, 數重排回, 而每多瑞氣煙凝, 淥竹樹靄。’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임이북 선생은 이것은 곡사와 무관한 것으로, 華嚴經 65권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華嚴經을 찾아보면 善財童子가 師子奮迅城에서 大興城까지의 불교 지역을 다니는 내용이므로 가사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마 초록하는 자의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임이북 선생은 판단했다.²⁹⁾ 그러나 이 구절은 〈華嚴經〉과는 관계가 없고 《付法藏因緣傳》 卷6의 내용과 관련된다. 실제로 돈황 문건 중에 보이는 21건의 ‘付法藏傳’의 사본들이 대부분 〈付法藏因緣傳〉의 초본이라 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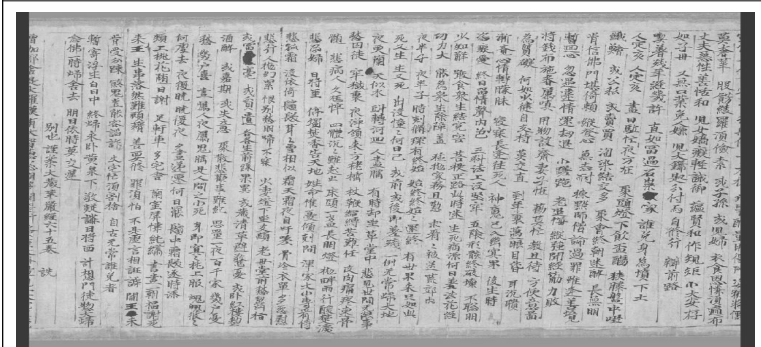
29) 任二北, 《敦煌曲校錄》, 140-141쪽.

30) 鄭曦, 앞의 논문, 54-55쪽.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구가 〈華嚴經〉인지 〈付法藏因緣傳〉인지에 관계없이 기록할 당시 돈황에서 유행하거나 중시했던 불경 구절을 초록하는 이가 임의로 흥에 맞춰 기록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P.2714는 앞면에 비교적 완전한 134수의 〈十二時〉가 적혀져 있고 다른 속부나 가사 등의 글이나 낙서 등은 보이지 않지만, 수미가 잘 갖춰진 사본으로 〈十二時〉[501]을 고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본이다.



〈사진 11〉 P.2714 앞면 일부(1)



〈사진 12〉 P.2714 앞면 일부(2)

사본 3) P.3087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30.8×173cm

사본 내용 구성 : 앞면에 총 115여 행 수록,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大乘無量壽經〉, 뒷면에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 수록

② 사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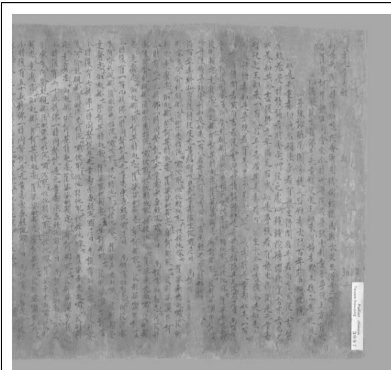
사본 P.3087의 앞면에는 총 115행의 제목 〈大乘無量壽經〉으로 시작되는 불경과³¹⁾ 뒷면에는 88행의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의 일부가 수록되어있다. 首尾가 완전하지 않으며, 辰時에서 시작하여 戌時까지 남아있고,³²⁾ 〈十二時〉[535]의 끝 구절부터 [609]까지에 해당한다. 앞면의 〈大乘無量壽經〉은 吐蕃 시대의 중요한 密宗 문서로 《大正藏》제19冊에 수록되어있어 토번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여겨진다.³³⁾ 따라서 뒷면의 〈十二時〉의 수록 시기에 비해 앞면의 〈大乘無量壽經〉이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앞면의 〈大乘無量壽經〉을 먼저 기록하였고, 이후 뒷면 여백에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을 수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뒷면의 누락된 부분인 [501]에서 [535] 앞 구절까지와 [610]에서 [634]까지의 부분이 이어지는 다른 사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본의 앞면에는 〈大乘無量壽經〉 각 행의 오른쪽에 ‘四’, ‘七’, ‘五’, ‘十四’ 등의 작은 숫자가 군데군데 적혀있다. 이 숫자들의 쓰임에 관해서도 후속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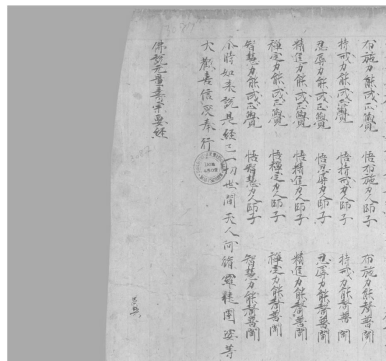
31) 〈大乘無量壽經〉은 약칭〈無量壽經〉 또는 〈大阿彌陀經〉으로 불린다. 《淨土五經壹論》 중의 一經이다. 출처: <https://baike.baidu.com> 2020/03/08.

32) 任二北, 《敦煌曲校錄》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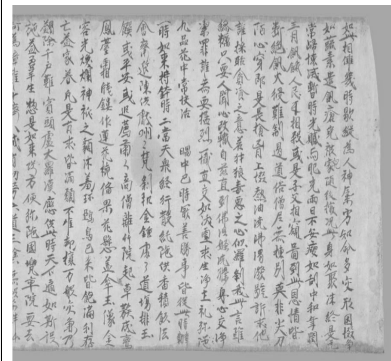
33) 鄭曦, 앞의 논문, 56쪽.



〈사진 13〉 P.3087 앞면 일부(1)



〈사진 14〉 P.3087 앞면 일부(2)



〈사진 15〉 P.3087 뒷면 일부(1)



〈사진 16〉 P.3087 뒷면 일부(2)

사본 4) P.3286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30.3×12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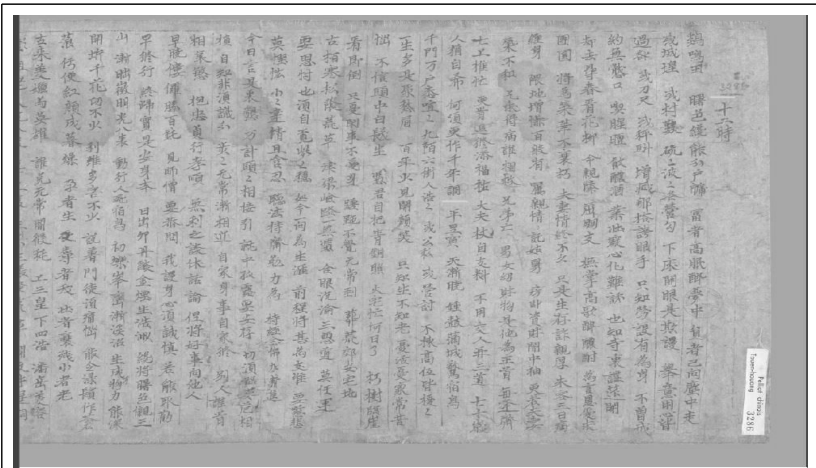
사본 내용 구성 : 앞면 총 80행, 우측에서 좌측방향 진행,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 일부 수록, 뒷면 社司轉帖 한 개 수록

② 사본 분석

P.3286은 길이 1.2미터 정도의 사본으로 앞면에는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의 앞부분이, 뒷면에는 ‘社司轉帖’이 보인다. P.2714와 같은 종류

의 것이다.³⁴⁾ 이 사본은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 중에서 《校錄》번호 [501]부터 [575]의 앞 구 세 글자인 ‘晡時申’까지만 보인다. 이는 앞면 마지막 행의 끝 글자들이 ‘晡時申’인 것으로 볼 때, 기록을 마친 후 떨어져 나갔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이에 이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다른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외 큰 얼룩이 여러 개 보이며, 앞면의 서체는 깨끗하지만, 필체가 중간에 바뀌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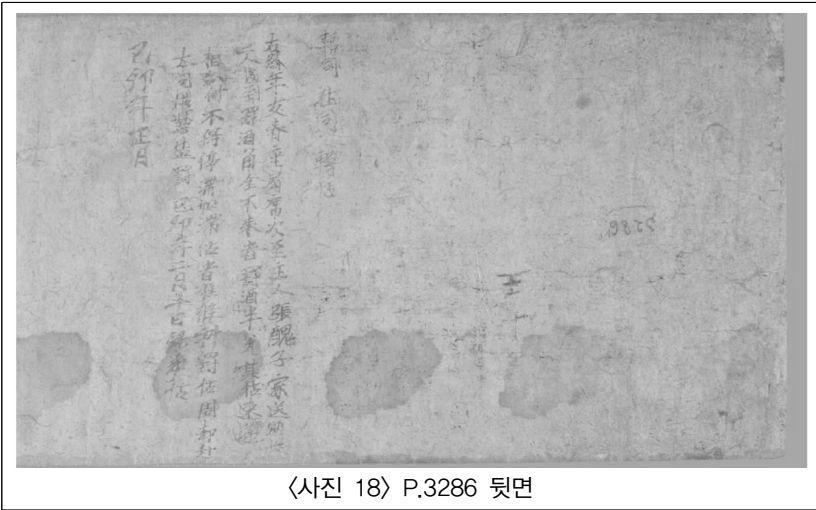
한편 뒷면 社司轉帖에 관하여, 轉帖는 연회나 사사로운 모임을 두루 전 달하는 초대장 같은 것이며, 내용은 ‘春秋局席’에 관한 것이다. ‘春秋局席’은 2월과 8월(봄과 가을)에 한 번씩 열리던 제사 및 많은 私社를 포괄하며, 한 달이나 두 달마다 거행되던 연회 활동이었다고 한다.³⁵⁾ 뒷면에 轉帖이, 앞면에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春秋局席’의 연회 자리에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이 널리 불렸을 것이다.



〈사진 17〉 P.3286 앞면

34) 任二北, 《敦煌曲校錄》 142쪽.

35) 鄭驥, 《敦煌歌辭‘十二時’寫本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56쪽 참고.



〈사진 18〉 P.3286 뒷면

(3) 〈五更轉〉 [418]이하

임이북 선생이 《校錄》에서 제시한 정격연장의 대표곡 〈五更轉〉 [418] 이하는 사본 P.3065와 李木齊 舊藏本이 있다. 《校錄》에는 《敦煌掇瑣》에 의거한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³⁶⁾

1) 〈五更轉〉 [418] 이하 가사

太子入山修道贊

一更夜月良。東宮建道場。幡花傘蓋月爭光。燒寶香。 [418]
 共奏天仙樂。龜茲韻宮商。美人無奈手頤忙。聲繞梁。 [419]
 太子無心戀。閉目不形相。將身不作轉輪王。只是怕無常。 [420]
 二更夜月明。音樂堪人聽。美人織手弄秦箏。貌輕盈。 [421]
 姨母專承事。耶輸相逐行。太子無心戀聲色。豈能聽。 [422]
 輪回三惡道。六趣在死生。從來改卻這般名。只是換身形。 [423]
 三更夜月亭。嬪妃睡不醒。美人夢裏作音聲。往相迎。 [424]

36) 任二北, 《敦煌曲校錄》 119쪽.

出家時欲至。天王號作瓶。宮中聞喚太子聲。甚叮嚀。[425]
 我是四天王。故來遠自迎。朱鬢便躡紫雲騰。夜逾城。[426]
 四更夜月偏。乘雲到雪山。端身正坐欲向前。坐禪邊。[427]
 尋思父王憶。每當姨母憐。耶輸憶我向門看。眼應穿。[428]
 便即喚車匿。分付與衣冠。將吾白馬卻歸還。傳我言。[429]
 五更夜月交。帝釋度金刀。毀形落發紺青毫。鵲頂巢。[430]
 牧女獻牛乳。長者奉香藥。誓當作佛苦海嶠。眉間放白毫。[431]
 日食一麻麥。六載受勤勞。因充果滿自逍遙。三界超。[432]

이 조는 매 更이 세 수로 구성되어 총 15수가 있다. 구식은 ‘5,5,7,3’이며 末句에 간혹 두 개의 襯字까지 다섯 글자를 만들 때도 있다. 매 更의 세 수중 첫수가 主曲이고, 나머지 두 수는 輔曲이며, 세 수는 반드시 같은 운에 있다.³⁷⁾ 내용은 한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해 雪山으로 들어가 修道하는 싯다르타 태자 이야기를 贊으로 읊은 곡이다.³⁸⁾

2) 초록된 사본의 양상

사본 P.3065

① 사본 구성

사본 외형 크기 : 15.2-15.5×82cm

사본 내용 구성 : 앞면 총 34여 행, 차례대로 〈太子入山修道讚〉, 〈十二部諸經讚〉수록, 뒷 면은 기록된 바 없음.

② 사본 분석

P.3065의 구성은 [418]부터 [432]까지의 15수인 〈太子入山修道讚〉과 [214]부터 [222]까지의 9수로 구성된 〈十二部諸經讚〉이 연이어 있다. 임이복 선생은 〈十二部諸經讚〉에 관해 곡조가 〈五更轉〉과 같고 末句에 두 개의 襯字를 넣어 모든 수가 ‘5,5,7,5’로 끝나며, 내용이 일관되므로 보통연

37) 같은 책, 121쪽.

38)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 공역, 《돈황학대사전》, 소명출판, 2016, 1039-10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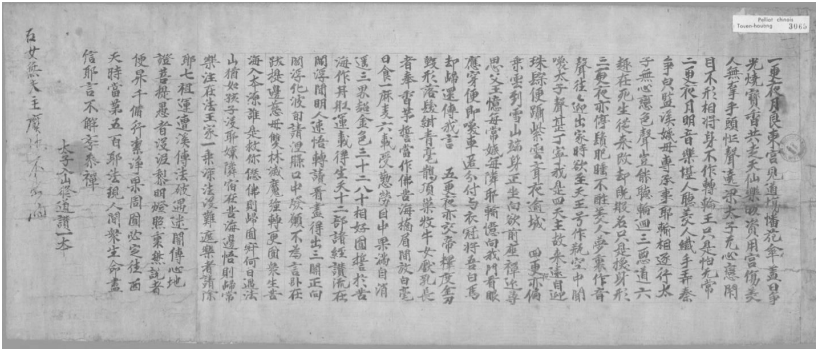
장으로 보았다.³⁹⁾ 같은 곡조를 쓰고 내용이 일관된 점은 정격연장의 특성이지만, 매 수가 매 경으로 시작하지 않고, 간혹 구식을 어기는 수도 보이며, 또 구식이 ‘5,5,7,5’로 변형되어 매수의 末句가 모두 5언이므로 보통연장으로 봐야 한다.

사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 P.3065는 하나의 사본 안에 같은 곡조의 정격연장과 보통연장이 이어져 있다. 이것은 이후 오랫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해 통속문학의 맹아로서의 정격연장 특성을 보이는 과도기적 형태의 모습이다. 당시에 이미 유명해진 곡조에 襯字를 사용하거나 약간의 구식만 바꾸어 여러 형태로 불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본은 정격연장이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흥미로운 사본이며, 무엇보다 더해진 글자들이 친자인지의 여부와 이후 곡조의 변형 및 발전양상 추적에 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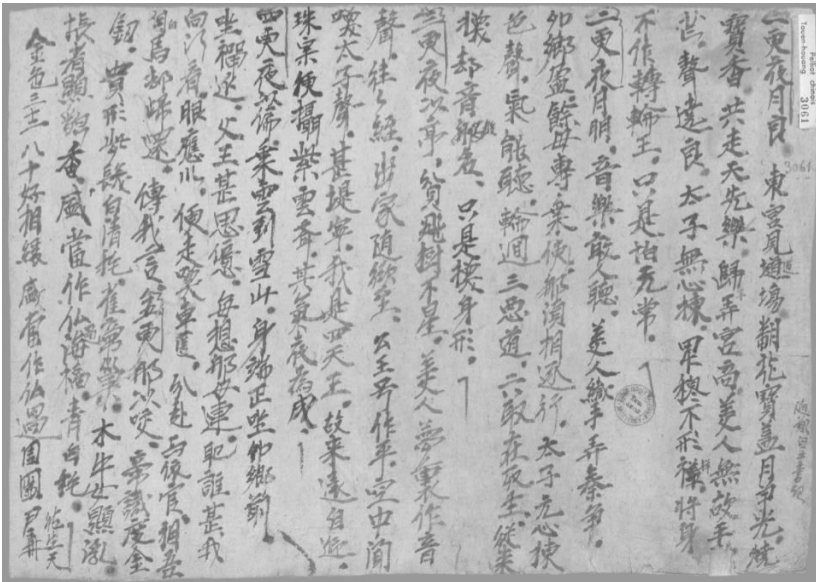
한편, BNF에 의하면 이 사본은 P.3061과 같다고 한다. 아래 <그림 25> P.3061을 살펴보면 박자와 관계되어 보이는 빨간색 꺾쇠 ‘ㄱ’들이 규칙적으로 출현한다. 이것은 앞서 <十二時>[501]이하의 사본 중 P.2054에도 출현된 표시였고, P.3061에서는 매 경의 시작 부분에 보인다. ‘ㄱ’표시도 함께 보이는데, ‘ㄱ’(이)가 나타난 부분은 매 구가 끝나는 글자의 우측이다. 그렇다면 ‘ㄱ’은(는) 새 段이 시작되는 곳의 표시였을 것이며, ‘ㄱ’은(는) 지금의 짧은 쉼표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띄어쓰기로 충분히 休止 표시가 가능했을 텐데 굳이 붉은색으로 바꾸어 가며 표시를 해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五更轉>[418]이하의 <太子入山修道讚>은 당시에 불교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 민간에서 불린 매우 유행한 가사였고, P.3065는 길이는 짧지만 많은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본이다.

39) 任二北, 앞의 책, 113쪽.



〈사진 19〉 P.3065 앞면



〈사진 20〉 P.3061 앞면

3. 定格聯章 抄錄 寫本 특징

이상으로 《校錄》에 수록된 定格聯章이 수록된 사본들에 관해 살펴보

았다. 이 사본들에 수록된 것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敦煌曲校錄》內 定格聯章 抄錄 寫本 구성

校錄 번호	<十二時>[467]이하		<十二時>[501]이하				<五更轉> [418]이하
곡사	發憤勸學 十二時		十二時 普勸四衆依教修行				太子入山 修道讚
사본 번호	P.2564	P.2633	P.2054	P.2714	P.3087	P.3286	P.3065
사본 크기 (cm)	29.9~30.4 × 285.9	29.4~30.3 × 164.2	29.3~29.5 × 434.1	30~30.7 × 248,8	30,8 × 173	30.3 × 121.5	15.2~15.5 × 82
불 교 적 내 용	佛頂尊勝 陀羅尼經	‘壬午年正 月九日淨土 寺 南院學 仕郎書’	智嚴의 十二時 普勸四衆 依教修行	智嚴의 十二時 普勸四衆 依教修行 일부	智嚴의 十二時 普勸四衆 依教修行 일부, 大乘 无量壽經	智嚴의 十二時 普勸四衆 依教修行	太子入山 修道讚
구 성	앞면: 齋齋新婦文 一本, 晏子 賦一首, 齋 齋新婦文, 十二時 序로 보이는 詩, 發憤 十二時, 太公家教. 뒷면: 佛頂尊勝陀 羅尼經, 百 行章疏, 百 삼 머리 모 양의 두 개 의 크로키, 永安寺에서 의 계약서 두 개, 盧라 불리운 박사 의 국채.	앞면: 齋齋新婦文 一本, 正月孟 春猶寒, 劉長 卿의 酒賦, 崔 氏 夫人 要 女 文, 楊蒲山詠 孝經 壹拾捌 障, 앞면 끝 행에 ‘辛巳年 正月五日 汜 員昌韓賓上’. 뒷면: ‘壬午年正 月九日淨土 寺南院學仕 郎書’ 한 행.	앞면: 智嚴十二時 普勸四衆依 教修行. 뒷면: 疏請 한 통. *‘ㄱ’ 표시	앞면: 智嚴十二時 普勸四衆依 教修行, ‘別 也...’로 시 작하는 세 구절. 뒷면: 없음.	앞면: 大乘无量壽 經. 뒷면: 十二時 普 勸四衆依教 修行 일부.	앞면: 十二時 普 勸四衆依教 修行 일부. 뒷면: 社司轉帖 한 통.	앞면: 太子入山修 道讚, 十二部 諸經讚 뒷면: 없음. *P.3061과 동일, ‘ㄱ’, ‘ㄷ’ 의 표시

〈표 3〉에서 첫째, 《校錄》내 정격연장이 초록된 사본은 펠리오의 것들이 대다수이다. 필자는 《校錄》에 수록된 정격연장들의 사본을 크게 펠리오와 스타인의 것으로 구분하려 하였으나, 《校錄》내 대표 정격연장이 수록된 스타인의 사본은 없다. 비록 이후에 더 많은 돈황가사들이 증보되면서 스타인 및 다른 사본의 것들도 보이지만⁴⁰⁾, 정격연장이 수록된 사본의 비율은 펠리오의 것이 더 높았다. 이것은 돈황 막고굴에서 이들 두 학자가 가지고 간 한문 사본의 총 개수 대비 정격연장 수록 사본(장편 정격연장 포함, 실조명 제외) 비율을 본다면 펠리오가 4000여점 중 총 36개 0.9%, 스타인이 8102점 중 30개 0.3%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는 막고굴에 도착하기 전 펠리오는 이미 한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Françoise Wang-Toutain에 의하면 펠리오는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까지의 여행기에 관한 글을 1904년에 썼을 뿐만 아니라 불교 법령의 音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反切을 이해하고 있었고 각 한자의 발음을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노트해두었을 정도라고 한다.⁴¹⁾ 따라서 그가 선별해 간 자료들은 불교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가늠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두 번째, 정격연장이 초록된 사본에는 모두 불교와 관계되는 것들이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대의 민중에게 불교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정격연장을 애호했으며, 역으로 민간에서 매우 유행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五更轉〉[418] 이하가 실린 P.3065는 P.3061과 가사가 일치하는데 P.3061은 가사의 우측에 빨간색의 표시들이 규칙적으로 출현하는 음악적인 성격이 보이므로 이 가사는 당시 매우 유행했던 가사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불교가

40) 定格聯章은 《敦煌歌辭總編》에서 定格聯章 및 長篇定格聯章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十二時〉[501]이하의 〈普勸四衆依教修行〉이 장편정격연장으로 수록되어있다. 장편정격연장 포함, 실조명을 제외한 정격연장 수록 사본 총 개수는 펠리오 사본이 37여 개, 스타인 사본이 31여 개, 《敦煌零拾》 및 기타 5개로 총 73여 개이다.

41) Françoise Wang-Toutain, "Paul Pelliot et les Études Bouddhiques". *Paul Pelliot: de l'histoire à la légence*. Paris: AIBL, 452-453.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十二時〉[467]이하 사본들에는 당시 유행했던 속부들(P.2564의 ‘晏子賦’, P.2633의 ‘酒賦’)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내용 또한 일반적 교훈인 효행이나 권학, 세상 이치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은 지루할 수도 있는 불경을 강창할 때 청중들의 흥을 돋우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재미난 이야기나 삶의 교훈도 함께 삽입하여 노래한 것이다. 네 번째, 당시의 사본은 절에서 소중히 보관되던 문서가 아니라 공연을 위한 곡보 수준의 것이었다. 사본은 음악을 사용하는 연예양식의 공연을 위해 가사와 다른 것들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었고, 가사가 적힌 사본들이 많다는 것은 이러한 가사를 부르는 새로운 연예양식이 유행되자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전과의 목적으로 써두었을 것이다. 사본 뒷면의 불경 뿐만 아니라 기타 잡곡, 날짜, 학사랑의 낙서 등으로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이미 고증된 가사의 성격과 함께 초록자, 초록 장소 등에 관한 개별연구가 사본별로 이루어진다면 당시의 강창문학의 연예양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본고 에서는 임이복 선생이 처음으로 정격연장을 구분해내었던 《敦煌曲初探》과 《敦煌曲校錄》에 근거하여 해당 곡조들과 그것들이 초록된 사본들의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정격연장은 음조림에 제한이 있고, 증감을 용인하지 않는 곡이다. 당시 이러한 곡들이 이미 민간에서 많이 불렸으나, 돈황곡자사 연구의 초기에는 정격연장이 불교적 성격이 강하므로 돈황 민간문학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임이복 선생은 처음으로 ‘敦煌曲’으로 명명하여 돈황 민간문학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격연장을 돈황곡 중 정격연장으로 분류하였다. 정격연장은 이후 강창문학의 모태가 되는 변문과 관련되므로, 정격연장을 민간문학에서 배제한다면 강창문학의 유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격연장의 대표적인 곡으로 〈十二時〉와

〈五更轉〉, 〈百歲篇〉, 〈五更轉兼十二時〉가 있으며, 특히 〈十二時〉와 〈五更轉〉은 불교 寶卷의 詞調에서 이 형태를 볼 수 있다. 이후 송사의 詞牌를 형성할 정도로 유행하게 되었고, 명청대 까지 줄곧 통속문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임이복 선생이 《敦煌曲初探》에 제시한 정격연장의 대표곡이 수록된 사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펠리오 사본이 대다수이다. 유출된 한문본 사본의 총수 대비 정격연장 수록 사본은 폴 펠리오가 4000여 점 중 36개, 오렐 스타인이 8102여점 중 30여 개로 각각 약 0.9%와 약 0.3%의 비중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펠리오 사본에 대한 재고 가치를 드러낸다. 두 번째, 정격연장 초록 사본에는 불교와 관계되는 것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 사본들에 함께 수록된 것들에서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정격연장은 민중 생활에 스며들어 불교를 쉽게 전파 시키는 한 장르였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당시의 사본은 절에서 강창의 공연을 위한 도구적 성격의 것이었다. 이는 뒷편의 불경부터 잡다한 메모들의 내용과 낙서 등의 흔적, 學仕郎의 존재, 하나의 곡에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돈황곡 사본 연구는 이미 수집되었거나 고증 중인 돈황곡이나 불경 이외, 사본에 수록된 기타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밝혀냄으로써 당시 강창양식이 어떻게 공연되었으며, 다른 수록된 것들의 쓰임은 어떠한지, 또 이들 간의 상관성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중국 본토와 대만, 일본 등에서는 돈황 사본에 관해 작성 시기, 작성자, 장소 등에 관한 연구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돈황 사본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전까지의 돈황학이 사본에 수록된 유명 작품들에 관한 고증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寫本學을 기반으로 사본 자체를 전면적인 각도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돈황 사본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다. 본문 내용 중 필자는 추후 연구가 기대되는 몇몇 의문들을 제기해 두었다. 이에 우리나라 碩學들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와 학문적 도움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 공역, 《돈황학대사전》, 소명출판, 2016
- 김금남, 〈敦煌 定格聯章體 歌辭 十二月의 서사구조 연행형식 고찰〉, 《中國文學研究》, 제64집, 2013
- 김학주, 《中國文學史》, 신아사, 1989
- 김학주, 《中國文學概論》, 신아사, 1995
- 김현주, 《敦煌曲子詞選集》, 현학사, 2004
- 왕중민(이태형 역), 《敦煌曲子詞集》, 학고방, 2011
- 이은주, 《敦煌歌辭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전홍철의 2인 역, 《돈황변문교주1》, 소명출판, 2015
-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해》, 소명출판, 2011
- 조명화, 《敦煌講唱文學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차주환, 《敦煌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최진아 역, 《북리지, 교방기》, 소명출판, 2013
- 陳凱源, 〈敦煌佛頂尊勝陀羅尼經變研究綜述〉, 《隴東學院學報》 第30卷, 2019.
- 池田, 《敦煌文書の世界》, 中華書局, 2007.
- 伏俊璉、徐會貞, 〈敦煌歌辭‘五更轉’研究綜述〉, 《樂山師範學院學報》 第31卷, 2016.
- 季羨林, 《敦煌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8.
- 林聰明, 《敦煌俗文化研究》, 私立東吳大學, 1984.
- 劉芳, 〈宋元詞曲延邊研究〉,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劉尊明, 〈敦煌曲子詞整理研究的百年歷程〉, 《文獻》 第壹期, 1999.
- 毛秋瑾, 〈敦煌吐魯番寫本中的寫經生與學仕郎〉, 《中國書法》 208期, 2010.
- 錢華, 《中國文學初步》, 廣東人民出版社, 2003.
- 饒瑩, 〈試論定格聯章體‘五更調’與‘十二月’民歌-以‘清車王府藏曲本’時調小

- 曲為例》，《北方音樂》第20期，2015。
- 任二北，〈敦煌曲初探〉，上海文藝聯合出版社，1954。
- 任二北，〈敦煌曲校錄〉，上海文藝聯合出版社，1955。
- 任二北，〈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出版社，1987。
- 譚 茹，〈敦煌俗賦寫本同卷內容研究〉，西華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9。
- 王重民，〈敦煌曲子詞集〉，商務印書館，1950。
- 徐會貞，〈敦煌歌辭‘五更轉’寫本研究〉，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6。
- 余芳艷，〈唐五代聯章詞研究〉，蘭州大學，碩士學位論文，2012。
- 詹安泰，〈簡論‘敦煌曲’中的‘普通雜曲’〉，《學術研究》第2期，1963。
- 張長彬，〈敦煌曲子辭寫本整理與研究〉，揚州大學，博士學位論文，2014。
- 鄭阿財，〈唐代佛教文學與俗曲—以敦煌寫本‘五更轉’，‘十二時’為中心〉，《普門學報》第20期，2004。
- 鄭 驥，〈敦煌歌辭‘十二時’寫本研究〉，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5。
- 鄭 驥，〈寫本學視閩下的敦煌文學生產與傳播—以佛教歌辭‘十二時 普勸四眾依教修行’為例〉，《雲南師範大學學報》第49卷，2017。
- 鄭振鐸，〈中國俗文學史(上)〉，臺灣商務印書館，1938。
- Françoise Wang-Toutain, “Paul Pelliot et les Études Bouddhiques”. *Paul Pelliot: de l’histoire à la légence*. Paris: AIBL, 2013.

< Abstract >

‘Fixed Form and Association Chapter of Songs’ refers to a ensemble song and poem combination with consistent tunes, consistent content, and a fixed format for sentence patterns and paragraphs and first defined by Mr.Ren Erbei in 1954, and he presented 〈Shi’ershi〉 and 〈Wugengzhuan〉 to Representative Poems in his book 《Dunhuangqu Jiaolu》, and they are recorded in Dunhuang Papers discovered by Paul

Pelliot. He knew Chinese and understood Buddhism, so ‘Fixed Form and Association Chapter of Songs’ appeared with Buddhist scriptures in Pelliot’s Dunhuang paper.

Also there are other manuscripts which informs the situations of the time. So by researching at the other parts as well as known poems, it is possible to guess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Dunhuang manuscripts research in ‘Fixed Form and Association Chapter of Songs’ provides a detailed picture of how entertainment styles were presented at the time by scrutinizing and revealing other parts of the collection, other than lyrics or Buddhist scriptures already collected or studied.

Key Words : 정격연장(Fixed Form and Association Chapter of Songs), 十二時(Shi’ershi), 오경전(Wugengzhuan), 폴 펠리오(Paul Pelliot), 임이북(Ren Er Bei), 돈황사본(Dunhuang manuscript)

